

## 옌푸(嚴復)의 번역이론 ‘아(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번역론

손지봉  
(이화여대)

### 1. 서론

필자는 옌푸(1853-1921)를 청대 말기 유명한 문학유파였던 동성파(桐城派)의 일원이며, 중국번역이론 수립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인물로 소개한 바 있다(손지봉 2010c, 138). 옌푸의 번역이론인 신달아론(信達雅論)은 중국번역사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천하의 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sup>1)</sup> 옌푸의 번역이론은 일찍이 량치차오(梁啟超)(1896)에서부터 최근의 왕이언(王言)(2011)에 이르기까지 후쓰(胡適), 위따푸(郁達夫), 허린(賀麟), 궈모루어(郭沫若), 마오둔(茅盾), 천푸캉(陳福康), 루쉰(魯迅), 린위탕(林語堂), 첸중수(錢鍾書), 아이쓰치(艾思奇), 쑤광치엔(朱光潛), 취치어우바이(瞿秋白), 린이량(林以亮) 등 중

1) 郁達夫는 “信達雅의三者,是翻譯界의金科玉律.”라고 하였으며, 羅新璋은 “以其論譯几于道,一言而爲天下法. 이라 하였다.(손지봉 2010c, 137-138)

국의 대표적인 문인, 번역가 등의 논의 대상이 되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도 옌푸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있었다. 신희원(1970)이 생애와 사상에 대해 소개한 이래 조병환(2000)과 이보경(2002)은 근대 번역에 있어서 옌푸의 역할을, 양일모(1999, 2009)와 박영철(2004)은 옌푸의 대표적 번역서인 『천연론(天演論)』과 『법의(法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백광준(2006)은 옌푸 번역어의 제작과정과 그 단명한 이유에 대해서까지 논의하였다. 나아가 양일모(2008)는 옌푸의 번역, 진화, 자유, 민주, 서학(西學), 과학 등에 대한 논의를 엮어 중국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위상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로 볼 때 옌푸는 번역가로서 한·중양국에서 누구보다 많이 연구된 인물이므로 그의 번역가로서의 면모나 번역이론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사족으로 여겨질 듯하다. 그러나 번역이론 중의 ‘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다고 한다.<sup>3)</sup>

본고에서는 ‘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아’의 특징을 밝히는 한편 이들 논의에서 나타난 번역론을 밝히고자 한다.

## 2. ‘아’의 사전적 정의

옌푸 연구의 권위자인 쉰수루(沈蘇儒)는 신달아의 ‘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함을 언급하고 『사원(辭源)』을 활용하여 문헌적 해석을 시도한 뒤 옌푸가 말한 ‘아’는 ‘正’이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필자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널리 이용되는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1993)을 활용하였다. ‘아’의 의미 중에 신달아와 연관된 어휘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 소개된 예문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

2) 沈蘇儒(1998, 55-99) 제3장에서 1998년까지 信達雅論에 대한 논의를 긍정, 부정, 기타 등으로 나누어 각각 58명, 27명, 24명 등 총 109명의 평가를 수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정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3) 沈蘇儒(1998, 40)는 ‘雅’의 풀이가 가장 다양하며 이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하였다.

4) 沈蘇儒(1998, 40)는 ‘雅’의 뜻으로 ①正確, 規範 ②高尚, 文明 ③美好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중에 ①번의 ‘正’이라고 하였다.

과 같다.

예문1)

원문: 正;合乎規範、標準的。『詩序』“言天下之事,形四方之風,謂之雅。

雅者,正也。言王政之所由廢興也。”

번역문: 바름. 규범에 맞음. 표준적. 『시경』 서문에 “천하의 일을 말하여 사방의 풍을 나타냄을 ‘아’라고 한다. ‘아’는 바르다는 뜻이니 왕정이 이로 말미암아 폐하고 흥하게 된다.”

예문2)

원문: 指雅言。標準語。古代訓詁著作多稱雅,如《爾雅》、《小爾雅》、《廣雅》、《埤雅》等。

번역문: 아언(雅言)을 가리킨다. 표준어. 고대의 훈고저작들은 『이아(爾雅)], 『소이아(小爾雅)], 『광아(廣雅)], 『비아(埤雅)] 등처럼 대부분 ‘아’로 칭하여졌다.

예문3)

원문: 高雅不俗;優美。『楚辭』「大招」“容則秀雅,穉朱顏只。”王逸注: “言美女儀容閑雅,動有法則,秀異於人。”

번역문: 높고 우아하여 비속하지 않음. 뛰어난 아름다움. 『초사』 대초』조에 “절도 있는 태도 남달리 빼어나고 빨강게 꽃피는 아름다운 얼굴이로다” 하였는데 왕일의 주석에서 “미녀의 태도가 여유롭고 움직임에 범도가 있어 보통사람보다 매우 뛰어나다.”고 하였다.

『시경(詩經)] 『대서(大序)]에서 “천하의 일을 말하여 사방의 풍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풍’은 ‘글을 통해 넉지시 하는 말(主文而譎諫)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화(風化)시키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나무라는 것(諷刺)이라고 한다.’ 즉 ‘아’는 ‘천하사방에 풍자, 풍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풍자’를 통해 왕정이 폐한 이유를 말하고 ‘풍화’를 통해 왕정이 흥한 이유를 말하게 된다. 그렇기에 ‘아’는 ‘정(正)’이라고 하였다.

또 ‘정’이란 표준적인 것이라고 하였는데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표준’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첫째는 ‘사물이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는 뜻이며, 둘째는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이라는 뜻이

다.5) 그런데 둘째 뜻에 해당되는 것은 ‘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과 ‘표준’의 뜻을 충족시키는 풀이는 첫째 풀이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2)에서 ‘아’를 ‘아언(雅言)’이라 하고 이는 ‘표준어’라고 하였는데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규범으로서의 언어’라는 뜻으로 ‘아’는 ‘정(正), 표준, 규범’ 등의 뜻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예문3)에서는 ‘아’에 ‘우아하다(優)’는 뜻과 ‘아름답다(美)’는 뜻이 복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우아하다’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멋있다’, ‘고상하다’, ‘고결하다’, ‘멋지다’, ‘세련되다’, ‘아름답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둘째, ‘아름답다’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하다’는 뜻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의 사전적 정의는 ‘규범·표준’과 ‘우미’로 정리할 수 있겠다.

### 3. ‘아’에 대한 기존의 논의

‘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에서 제시된 ‘규범·표준’, ‘우미’ 외에 ‘문학적·풍격(風格)’ 등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었는데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번역의 ‘규범·표준’으로서의 ‘아’

예문4)

원문: 「雅」若就本義來說,就是用全國通行的規範化的語言進行翻譯。然而,嚴復對「雅」字的解釋,却不是這樣。他把「雅」說成是「用漢以前字法句法」,譯文力求典雅,但却使人費解,這就不對了。(馬祖毅 261, 沈蘇儒 82재인용)

번역문: ‘아’의 본의는 전국통용의 규범화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옌푸는 아자(雅字)에 대한 해석을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5) <http://dic.search.naver.com> 이하 어휘의 사전적 해석은 이 사전의 풀이를 인용함.

그는 ‘아’를 한나라 이전의 자구법을 이용하여 번역문을 전아하게 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문5)

원문: 我之所以不採用嚴復所講的「雅」字,以改用「切」字,是因為「雅」即所謂「爾雅」或「文雅」,而「雅」實際上只不過是風格中的一種.....「切」是個中性詞,適用於各種不同的風格。(劉重德 10, 沈蘇儒 83재인용)

번역문: 내가 연푸가 말한 아자(雅字)를 쓰지 않고 절자(切字)로 고친 것은 ‘아’가 이른바 ‘이아(爾雅)’나 ‘문아(文雅)’로 ‘아’는 사실상 다만 하나의 풍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절(切)’은 중성적인 말로 각종 풍격에 적용된다.

예문6)

원문: 這些話都是當日的實情。當時自然不使用白話,若用白話,便沒有人讀了。八股式的文章更不適用。所以嚴復譯書的文體,是當日不得已的辦法.....(胡適 115, 沈蘇儒 56-57재인용)

번역문: 이런 말은 모두 당시의 실정이다. 당시에는 자연히 백화를 쓰는 게 불편하였다. 만일 백화를 쓰면 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팔고문장은 더욱 쓰기에 부적합하였다. 그러므로 연푸 번역문체는 당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예문7)

원문: 在嚴復看來,當時的桐城派古文(也就是他說的「用漢以前字法句法」)就是「文章正軌」。這樣的文辭顯示出文化的高水平,用於翻譯的譯文,就可為文化水平高的社會階層所認可和接受,從而達到「行遠」的目的。(沈蘇儒 40-41)

번역문: 연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의 동성과 고문 (또한 그가 말한 한나라 이전의 자법과 구법을 쓴)이 문장의 규범이었다. 이런 문장은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이를 쓴 번역문은 문화수준이 높은 사회계층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오래도록 남기려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마주이(馬祖毅)는 예문4)에서 ‘아’를 ‘규범·표준’의 뜻으로 써야 하는데 연푸가 ‘우미’의 뜻으로 썼으며 바로 한나라 이전의 어법을 활용하였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예전 문체를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내용 이해를 위해 시간낭비를 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아’에 대한 옌푸의 해석과 보수적 글쓰기를 비판하되 ‘아’의 해석은 ‘규범·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료중더(劉重德)(1993,10)는 예문5)에서 옌푸가 쓴 글자(雅)가 ‘우미’의 뜻만을 갖고 있으므로 그런 풍격만을 지칭하게 된다고 하면서 모든 풍격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글자(切)를 쓰자고 하고 있다. 료중더는 옌푸의 ‘아’에 대해 ‘우미’라는 의미로 잘못 쓰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아’라는 어휘 자체까지 비판하며 마주이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료중더는 ‘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번역에 있어서 규범을 지칭하는 용어의 필요성은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후쓰(1992,115-118)가 예문6)에서 말한 옌푸의 번역문체는 고문이다. 후쓰는 당대에 백화의 통용을 주장한 인물로 번역문도 백화로 써야 함을 주장하였다.<sup>7)</sup> 그런데 옌푸의 번역문 문체에 대해서는 당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옹호하였다. 이는 그 문체가 당대의 ‘표준’이었다는 말로 읽힌다. 옌푸도 백화를 지향하려 했을텐데 당시 상황이 독자에게 읽히는 글을 쓰려면 고문을 써야 했기 때문에 백화를 쓰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동성파의 대표적 고문가인 옌푸에게 위의 문체는 마지못해 썼다기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문체라는 점에서 후쓰의 주장은 백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sup>8)</sup> 당대에 옌푸의 정치사상은 자본주의적이고 선진적이었지만 동성파 고문가로서 문장은 매우 전아하며 옛것을 따랐으므로 문학상으로는 복고주의자요 유태주의자였기 때문이다(李蟠 71).

예문7)에서 쉰수루(1998,40-41) 역시 후쓰처럼 동성파 고문의 ‘우미’가 ‘표준’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당대의 ‘표준’은 동성파의 고문이었으며, 이는 번

6) 劉重德이 ‘雅’ 대신에 ‘切’을 내세웠지만 이는 ‘雅’를 ‘우미’의 뜻만을 지닌 어휘로 한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가 주장한 ‘切’은 ‘표준’, ‘평균’ 등의 뜻을 지닌 ‘雅’에 포괄 될 수 있다.

7) 胡適은 문학혁명의 주창자로 白話 全用을 주장하였다.(陳福康 200).

8) 이 글에서 胡適은 번역계에서의 嚴復의 위상을 고려하여 당시에 백화가 표준적이었으면 嚴復 역시 백화를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嚴復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역문이 널리 오래도록 유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썬수루는 다만 옌푸의 입장에서 후쓰와 같은 평가를 내리되 후쓰가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으로 평가하였다. 썬수루가 본 옌푸에게 있어서 ‘아’는 ‘우미’이면서 동시에 ‘표준’이었던 셈이다. 이엔홍메이(鄴紅梅)(2008,95-96)는 그동안 신달아의 ‘아’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하며 특히 옌푸의 이 문체는 특별한 독자들을 위해 설계한 것이지 학생이나 일반 무식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독자는 ‘박학한 사대부(飽學的士大夫)’라고 추정하였다. 이들이 당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며, 이들은 문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므로 먼저 아름다운 문체로 이들을 끌리게 하고 나아가 근대 서양학문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엔홍메이의 주장에서도 ‘아’를 ‘표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반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표준이기보다는 번역자가 설정한 특정 독자에 대한 표준이라는 점에서 협소한 의미에서의 표준이라 할 수 있겠다.<sup>9)</sup> 이보경(2002)은 신달아에 대한 중국 현대역을 소개하면서 신달아에 대해 “원텍스트에 대한 ‘충실성’, 독자의 독서효율을 말하는 ‘가독성’, 그리고 문장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문체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문체미에 대한 설명에서 고대 이래 중국의 문(文) 전통을 이은 것으로 이는 문장의 아름다움은 물론 서구 근대문명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체미는 궁극적으로 충실성보다는 가독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보경도 옌푸의 문체미 실현을 독자를 위한 장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위의 논자들 모두 번역에 있어서 문장규범 또는 문장표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장규범이 절대적이고 초시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이고 시대에 한정된 것이냐로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마주이와 료중떠는 절대적이고 초시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옌푸가 이를 잘못 이해한 것이 문체라고 보았다. 즉, ‘아속(雅俗)’을 포괄하는 뜻의 ‘절’로 써야 할 용어를 ‘아’로 쓰거나 그 일부인 ‘우미’로만 해석하여,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이 되는 것에 실패했다고 비판하였다. 썬수루, 이엔홍

9) 金兵(2005,137) 역시 嚴復이 독자의 수준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 ‘優美’한 글을 썼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이는 수용미학(接受美學)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메이 등은 ‘아’를 상대적이고 시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옌푸가 당대의 독자에 맞추기 위해서 당대 언어규범에 맞는 우미한 글쓰기를 수행하였고 당대 사회지도층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옹호하였다. 이처럼 옌푸 번역 문체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같았지만 모두에게 ‘아’가 문장규범 또는 문장표준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2 원작을 뛰어넘는 ‘우미’의 실현

예문8)

원문: 「雅」則須文字雅訓,富有美感,不獨譯原文之意,且兼原文之美,有時其文字之美感且超過原文字也。(李培恩 281, 沈蘇儒 58재인용)

번역문: ‘아’는 모름지기 글이 아름답고 단련되었으며 미감이 풍부하다. 원문의 뜻을 번역할 뿐 아니라 원문의 아름다움까지 겸비한다. 어떤 때는 번역문의 미감이 원문을 뛰어넘을 때도 있다.

예문9)

원문: 嚴復在其獨特的翻譯事業中,提出了嚴譯的原則:其一,首倡「信、達、雅」的翻譯標準。「信」是意義不悞(背)本文;「達」則是不受原文形式的制約,以求原意明顯;而「雅」是指脫離原文而追求譯文的古雅。此三項標準,旨在強調意譯,至今仍有影響力。(韓省之 1997, 沈蘇儒 72재인용)

번역문: 옌푸가 독특한 번역작업에서 번역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하나는 신달아의 번역기준을 제창하였는데 ‘신’의 의미는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달’은 원문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고 ‘아’는 원문에서 벗어나 번역문의 고아(古雅)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의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아’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의 미감(美感)’(예문8), ‘역문의 고아(高雅)’(예문9), ‘문자 우아’<sup>10)</sup>, ‘역문 우미’<sup>11)</sup> 등 여러 논자들이 ‘우미’의 뜻으로 표현하였

10) 沈蘇儒(1998,58-59재인용). 吳獻書(1949. 5-6)는 “「雅」: 譯文文字優雅.....(아는 번역문의 글이 우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11) 沈蘇儒(1998,61재인용). 卞之琳 外(1959, 654)는 “「雅」是譯文優美。(아는 번역문



는데 리페이은(李培恩)은 예문8)에서 ‘미감’을 만드는 방법을 번역문을 아름답게 다듬는데 있다고 하였고, ‘미감’을 번역의 뜻과 구분하여 ‘미감’이 뜻으로 포괄할 수 없는 정서적인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더 나아가 원작보다 ‘미감’이 뛰어난 번역문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리페이은의 이 주장은 ‘아’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해석으로 신달아에서 ‘아’를 ‘신달’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본 것으로 평가된다. ‘미감’이 ‘아’의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원작과 같은 ‘미감’이란 결국 ‘信’의 일부로서의 ‘아’를 생각하게 한다. 즉 ‘아’는 ‘신’에 포함된 부속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원작 보다 뛰어난 ‘아’의 설정은 ‘아’가 ‘신’과 ‘달’을 뛰어넘어 번역에서의 창조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평가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예문9)의 ‘고아’는 ‘예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옌푸가 한나라 이전의 자구법을 전범으로 삼았다고 해서 ‘예스럽다(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성쓰(韓省之)는 ‘아’에 대해 ‘원문에서 벗어나’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원문보다 뛰어난’ 미감의 번역문을 쓸 수 있다던 리페이은의 주장과 공통점이 있다. 특히 여기서 한성쓰는 옌푸의 번역이론이 ‘의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드러내서 원문에의 충실을 강조한 ‘신’의 비중을 더욱 낮추었다.

옌푸의 번역활동은 국가가 서구열강의 침략에 노출된 현실에서 국민 계몽을 통한 구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진화론·자유론 등 서방의 선진문명 제도의 소개를 통한 계몽을 위해 이루어졌다(黃偉芳 128) 『원부(原富)』를 번역한 어떤 부분에서는 “글이 번다하고 반복되는데 기본 뜻과 관계 없으므로 중요한 뜻을 개괄적으로 풀었다(文多繁復而無關宏旨, 則概括要義釋之)”고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는 특정 구절을 삭제(刪節)하거나 예를 바꾸기(換例)도 하였다고 한다(陳福康 116). 무엇보다 ‘뜻의 전달(達旨)’에 목적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리페이은과 한성쓰는 이러한 옌푸의 뜻에 동조하였으며,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문장의 ‘우미’를 실현하는 일이 번역문이 널리 또 오래도록 전해지는 방법

이 우미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12) 信達雅에서 ‘雅’가 ‘信’과 ‘達’의 부속물인지 아니면 그보다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처럼 원문보다 뛰어난 번역문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雅’를 ‘信’과 ‘達’보다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견해와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겠다.

### 3.3 '문학성', '풍격'으로서의 '아'

예문10)

원문: 文學翻譯的最高境界是傳達出原作的風格.....也就是在「信」、「達」的基礎上再滿足「雅」的要求。我以文學性解「雅」,故「雅」不是「不俗」而是當雅則雅、當俗則俗,雅俗皆具文學性。文學性者,風格之謂也。(郭宏安 1996, 沈蘇儒 71-72재인용)

번역문: 문학번역의 최고경지는 원작의 풍격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신달'을 바탕으로 다시 '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나는 문학성으로 '아'를 해석하는데 '아'는 속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아'할 때는 '아'하고 '속'할 때는 '속'하여 아속이 모두 문학성이 갖추어져 있다. 문학성은 풍격을 말한다.

예문11)

원문: 譯文必須盡力保持原作風格。風格指民族風格、時代風格、語體風格、作者個人的語言風格等。(西北工業大學外語教研室 1979, 沈蘇儒 93재인용)

번역문: 번역문은 반드시 원작의 풍격을 유지해야 한다. 풍격은 민족풍격, 시대풍격, 문체풍격, 작가 개인의 언어풍격 등이다.

예문12)

원문: 「信」和「達」屬於技術的範疇,但「雅」則牽涉到譯者的個性、品格和修養了。沒有「雅」譯文也就沒有個性。一部文學作品是否在另一種文字中具有特色,要看它的譯文是否具有個性。一部文學作品在被移植到另一種文字中時,最低的要求當然是「信」和「達」,但是能否把原作的精神表達出來則是另一個問題而且是一個最重要的問題。(葉君健 1997, 沈蘇儒 66재인용)

번역문: '신'과 '달'은 기술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아'는 번역자의 개성, 품격, 수양과 관련되어 있다. '아'가 없으면 번역문도 개성이 없다. 하나의 문학작품이 다른 언어에서 특색을 갖추는 것은 그 번역문에 개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의 문학작품이 다른 언어로 옮겨질 때 가장 기본 적인 요구는 물론 '신'과 '달'이다. 그러나 원작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궈홍안(郭宏安)(1996)은 예문10)에서 ‘아’를 ‘풍격’이라고 하고 또 ‘문학성’이라고 하였다. ‘문학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문학작품에 담긴 예술성’이라 하였고, ‘예술’은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학성은 ‘문학에 담긴 아름답고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겠다. 문학성에서 중요한 것은 도달한 경지의 높고 낮음이지 ‘아속’은 아니라고 하였다. ‘아’는 ‘아’대로 ‘속’은 ‘속’대로 문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아’는 문학적인 높은 경지를 말한다. 한편, 천시잉(陳西滢)(1929,401)도 ‘아’는 문학작품에만 나타난다고 하여 문학성임을 암시하였다.<sup>13)</sup>

리관(李蟠)(1966,74)은 일반적으로 ‘풍격은 사람(風格卽人)’이라는 말이 있다면 사람이 다양한 만큼 풍격도 다양해서 어떤 풍격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른 풍격은 말할시킬 수도 있어서 ‘아’한 풍격만을 인정하다가는 결국 원작의 풍격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많은 번역 연구자가 ‘아’를 원작의 풍격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곤 하였는데 서북공업대학외어교연실(西北工業大學外語敎研室) 저자들은 예문11)에서 풍격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즉 민족, 시대, 문체, 작가 등으로 나누었다. 이는 민족성, 시대성, 당대문체, 작가의 개성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작품 이해에는 저자의 민족성, 저자가 살았던 시대성, 저자가 살던 당시의 문체 그리고 작가의 개성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잘 번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권지엔(葉君健)은 예문12)에서 ‘신’과 ‘달’은 그저 사실 기술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작의 정신을 표현하는 ‘아’라고 하였다. 이는 무정(木曾)이 ‘아’를 ‘신’과 ‘달’의 부속물로 본 견해와는 상반된다.<sup>14)</sup> 특히

13) 沈蘇儒(1998,85재인용). 陳西滢(1929, 401)은 “雅,在非文學的作品裏,根本就用不著.....(雅는 비문학 작품에서는 아에 필요 없다.)”고 하였다.

14) 沈蘇儒(1998,59재인용). 木曾(1941,369)은 “如果譯文誠能信矣達矣 則雅的成分亦自然含其中 所謂雅乃信達二者之附庸(만일 번역문이 진실로 충실하고 전달될 수 있다면 ‘雅’의 성분은 자연히 그중에 포함되게 된다. 이른바 雅는 信과 達의 부속물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원작의 정신을 개성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번역자의 개성, 품격, 수양 등이 반영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개성’은 ‘창의력’, ‘품격’은 ‘자질’, ‘수양’은 ‘노력’으로 환언할 수 있다. 즉 번역가가 번역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번역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문화가 다른 원작의 정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번역문이 단순히 원작을 기계적으로 옮긴 글이 아니고 원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에 대한 뜻으로 ‘규범·표준’, ‘유미’, ‘문학성·풍격’ 등이 쓰였으며 ‘아’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문장규범이며, 원작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미’한 번역문이고, 원작의 문학성·풍격을 옮기는 요소인 셈이다. 원작의 풍격은 원작의 민족성, 시대성, 문체, 개성이 담겨있으며, 이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자질과 노력 그리고 창의력을 지닌 번역가가 필요하다.

#### 4. 옌푸 번역이론의 독자성

예문13)

원문: 今人研究嚴復的翻譯理論和譯作,首先應考慮其所處時代及當時的語言習慣,方能正確理解其觀點和方法,以爲今日翻譯實踐的指導和借鑒.....嚴氏所主張的「雅」更是對泰特勒三原則的發展.....無論如何變化,任何譯者都必須通過對譯文文辭的修飾,一方面再現原作的藝術風格,另一方面順應其所處時代的語言習慣.....所謂「雅」的涵義在今日應是通過修飾譯文文辭,以再現原作的語言風格。它不僅可作爲衡量譯作優劣的一種標準,也是我們從事翻譯時不可忽視的重要因素。(徐守平 1994, 沈蘇儒 70재인용)

번역문: 우리들은 옌푸의 번역이론과 번역작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및 당시의 언어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그 관점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번역 실천의 지도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다... 엄씨가 주장한 아는 타일러의 삼원칙을 발전시킨 것이다...어떻게 변화하든간에 어떤 번역자든 반드시 번역문의 수식을 통해 한편으로는 원작의 예술풍격을 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언어습관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른바 ‘아’의 함의

가 오늘날에 있어서 번역문의 어휘를 수식하는 것을 통해서 원작의 언어풍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번역작품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문14)

원문: 雅... 卽文字流暢、簡潔、生動、詞匯豐富.....(外文出版社 224, 沈蘇儒 61재인용).

번역문: ‘아’는 즉 글이 유창하고 간결하며 생동적이고 어휘가 풍부한 것이다.

쉬서우핑(徐守平) 등(1994)은 예문13)에서 먼저 번역자의 시대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여 옌푸의 번역문이 부득이한 시대상황의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풍격’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어서 신달아가 Tytler의 3원칙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는데 타일러의 3원칙은 다음과 같다(Tylter 1790, 趙寶瑩 85 재인용)

1. That the translation should give a complete transcript of the ideas of the original work;(번역은 원작의 사상을 충실히 옮겨야 한다)
2. That the style and manner of writing should be of the same character with that of the original.(번역의 풍격과 문체는 원작의 성격과 같아야 한다)
3. That the translation should have all the ease of original composition. (번역은 원작의 구문을 쉽게 순조롭게 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옌푸의 번역이론과 타일러의 3원칙을 비교한 글들을 보면, 린루난(林錄南 739)은 제1원칙은 ‘신’에, 제2원칙은 ‘아’에, 제3원칙은 ‘달’에 각각 맞는다고 하였지만 리양(李楊 2011)은 이는 번역에 있어서 인류 보편적 원칙이라고 일반화하였고 짜오빠오잉(趙寶瑩 2011)은 타일러의 3원칙은 제1원칙이 기본이고 다른 두 원칙은 제1원칙인 ‘신’을 보조하는 존재인 반면 옌푸의 이론은 ‘신’과 ‘달’ 둘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타일러는 영국의 대표적인 번역가로 짜오빠오잉의 언급처럼 일관성 있게 원작에의 충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엔푸는 타일리의 원칙은 제1원칙으로만 내세우고 이어서 ‘달’을 제2원칙의 반열에 세웠으며, 제3원칙인 ‘아’는 ‘원문에서 벗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널리 오래도록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전시켰다. 이로 볼 때 ‘신달아’는 타일러 3원칙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엔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엔푸는 민족 계몽의 애국적 의도를 바탕으로 번역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원작에의 충실보다는 서양 발전의 근간이 된 사상의 전달(達旨)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러므로 쉬서우핑 등이 타일리의 번역방식을 발전시켰다고 한 평가는 엔푸가 영국의 번역방식을 받아들여 자기식으로 전환시킨 것을 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원작의 예술풍격을 재현하되 자기시대의 언어 습관하에서 수행하였다고 한 것이다. 당대 번역규범인 ‘아’는 번역자의 시대와 풍격 속에서 원작의 풍격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예문14)에서는 ‘아’를 글의 성격을 말하는 용어라고 규정하였다. 즉 유창하고, 간결하며 생동적이고 어휘가 풍부한 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느 정도 동성과 고문의 성격이기도 하다. 엔푸는 동성파의 대표적 인물로 고문 수업을 철저히 받았는데, 동성파를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야오나이(姚鼐)는 작문에 있어서 ‘의리’, ‘고증’ 그리고 ‘문장’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람이 문장을 배움에 그 공력이 지극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의리를 필침에 있어 분명하고 합당해야 할 것이며 번잡함과 간결함, 소박함과 화려함을 배치하고 취사선택함에 있어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문사를 토해냄에 말이 아순하여 잡스럽지 않으면 될 따름이다. 고금에 이러한 경지에 이른 자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문의 지극함은 아닌 것이다. 문의 지극한 것은 신명에 통하여 인력으로 필 수 없는 것이다. (抑人之學文，其功力所能至者，陳理義必明當，布置、取舍、繁簡、廉肉不失法，吐辭雅馴不芟而已，古今至此者，蓋不數數得，然尙非文之至。文之至者，通乎神明，人力不及施也。先生以爲然乎) (姚鼐 1979)

신명(神明)에 통하여 인력으로 필 수 없는 문장이 가능한 것은 ‘의리’와 ‘고

증’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배치하되 신명이 이끄는 대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쓴 문장이야말로 자연스럽게 글의 풍격을 높이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옌푸는 영국에 유학할 정도로 신지식인이었으며, 과거에 응시할 정도의 전통문인이었다(皮后鋒 10-42). 그러므로 애국계몽의 목적과 문장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일러의 3원칙을 발전시키되 작가의 뜻보다는 독자의 계몽을 우선시하고 원작을 뛰어넘는 품위 있는 문장을 쓰는 번역원칙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5. 최고 번역수준으로서의 ‘아’

예문15)

원문: 譯事三難 信達雅 求其信已大難矣。 顧信矣不達 雖譯猶不譯也 則達尙焉。 海通以來象寄之才 隨地多有 而任取一書 責其能與於斯二者 則已寡矣。 其故在淺嘗一也 偏至二也 辨之者少三也。

(嚴復 1898, 沈蘇儒 30재인용)

번역문: 번역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원문에 충실해야 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문장이 규범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원문에 충실하더라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번역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 역시 중시되어야 한다. 중국이 서양과 통상을 개시한 이래 외국어를 배운 인재는 각지에 많이 있었지만 임의로 어떤 책을 골라 번역을 맡기면 원문에 충실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그 이유는 첫째 피상적으로 보고, 둘째 편협하게 이해하며, 셋째 제대로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문16)

원문: 易曰 修辭立誠 子曰 辭達而已 又曰 言之無文 行之不遠 三者乃文章正軌 亦卽爲譯事楷模 故信達而外 求其爾雅 此不僅期以行遠已耳。 實則精理微言 用漢以前字法句法則爲達易 用近世利俗文字 則求達難 往往抑義就詞 毫釐千里 審擇於斯二者之間 夫固有所不得已也 豈鈞奇哉。(嚴復 1898, 沈蘇儒 30재인용)

번역문: 『주역』에서는 “말을 할 때는 참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말은 의미의 전달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에 문체가 없으면 멀리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는 문장을 쓸 때의 규범이며, 또한 번역의 모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규범에 맞는 문장이 요구된다. 이는 멀리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실제로 정치하고 심오한 이치는 한나라 시대 이전의 문장 규범에 따라야 의미를 전달하기가 쉽고, 근래의 통속어를 사용하면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때때로 원전의 의미를 무시하고 문장에 치중하면, 사소한 차이라 할지라도 결국 커다란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적합한 것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번역에서 불가피한 일이며, 결코 기이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옌푸는 예문15)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이유로 ‘천상(淺嘗)’, ‘편지(偏至)’, ‘변지자소(辨之者少)’ 등을 들었다. 이는 번역자의 원작에 대한 태도 및 이해 수준을 의미한다. 즉 첫째는 번역자가 원작을 대충 보는 태도를 지적했다. 이렇게 대충보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며 원작에 대한 이해가 불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원작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문에서는 편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특정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거나 특정의미만 전달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듯하다. 한 쪽을 편협되게 보는 것은 태도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능력부족으로 볼 수 있다. 즉 번역자의 이해수준이 떨어져 원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원작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원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번역자가 드물다는 말이다. 이상의 논의는 원작의 이해수준을 세 가지 층위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장 낮은 수준부터 말한 것으로 첫째 수준은 원작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마저 이해 못하는 수준이며, 둘째는 원작을 편협하게 살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셋째는 원작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예문16)에서는 세 가지 점을 들어 문장을 쓰는 모범이며 동시에 번역문의 모범이라고 하였다. 즉,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번역문 쓰기에서 중시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 ‘입성(立誠)’, ‘사달(辭達)’, ‘무문불원(無文不遠)’ 등을



들었다. 이는 번역문의 수준이기도 하다. 첫째는 성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충 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번역가 자신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한 말이다. 둘째는 독자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독자를 명확하게 하고 독자의 수준에 맞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널리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의 구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문체는 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체를 말한다. 이로 볼 때 번역가의 문장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번역한 수준, 독자의 수준에 맞게 번역한 수준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장으로 번역하여 널리 영향을 줄 수 있게 번역한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옌푸는 번역가의 수준, 번역문의 수준을 각각 세 가지 층위로 제시하였는데, 원작 이해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은 원작의 풍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원작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며, 번역문의 가장 높은 수준은 널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데 이처럼 번역가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번역문을 쓰는 것 그리고 그 번역문의 수준이 바로 ‘아’의 수준이다.

##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옌푸는 동성파의 고문가로서 시대적으로 뒤쳐져서 수모를 겪고 있는 중국이 서양 근대학문을 받아들여 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옌푸는 중국의 재기를 위해 서양근대학문의 번역을 실천한 번역가였으며, 번역 원칙을 세운 번역이론가였다.

옌푸의 번역이론인 신달아는 당대부터 중시되어 지금까지 논의의 준거점이 되어왔는데, 옌푸의 이 번역이론은 타일러의 번역 3원칙 이론을 발전시켜 제창한 독자적인 번역이론이다. 즉, 타일러가 원작에의 충실성을 중시한 반면 옌푸는 독자가 읽기 쉬운 가독성을 중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뜻의 전달을 위해서는 원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번역행위 자체의 엄격성보다는 독자의 계몽을 통한 국가개혁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으며, 고문 학습

을 통해 문장자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였던 옌푸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에 대해 마주이, 료중떠 등은 비판적이었지만 후쓰, 썬수루 등은 오히려 시대적 한계일 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옌푸가 번역에서 문학과 풍격을 유의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보았는데 원작의 풍격은 원작의 배경이 되는 민족성, 시대성, 당대의 문체 그리고 작가 개인의 특성 등으로 보았다. 특히 옌푸는 서양의 작품을 동양어로 번역할 때 이천년간 별도로 이루어진 문화이므로 제대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이를 제대로 옮기는 것이 바로 ‘아’이며 이는 ‘신’과 ‘달’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받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인정을 받기도 한다. 원문 자체를 충실히 파악하고 이를 독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함은 물론 원작의 정신을 잘 옮기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번역가의 자질, 노력 그리고 창의력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옌푸는 원문 이해의 수준을 피상적 이해수준, 전반적 이해수준, 깊이 있는 이해수준으로 층위를 나누었으며, 번역문의 수준은 본인이 최선을 다한 수준, 독자에게 뜻을 전달하는 수준, 널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 ‘아’의 수준은 원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널리 영향을 줄 수 있는 번역문으로 만든 수준을 뜻한 셈이다.

번역의 기본 요소는 작가, 독자, 번역가 그리고 원작과 번역문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번역연구의 최고 목표는 최상의 번역문 집필에 있기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옌푸의 ‘아’를 통해 번역의 규범이 필요하며, 번역을 위한 최고 수준의 원작 이해가 어떤 것인지, 최고 수준의 번역문이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제시된 층위별 수준을 보다 천착한다면 번역수준을 측정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중운 (1997) 「嚴復의 전통 인식 및 서학 수용의 태도」, 『중국학보』 37.  
 \_\_\_\_\_ (1997) 「천연론 논석」, 『전주사학』 제5집.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search.naver.com>
- 리디아 리우 지음 민정기 옮김 (2005) 『언어횡단적 실천』, 서울: 소명출판.
- 박영철 (2004) 「嚴復의 몽테스키외 번역과 중국의 근대화」, 『역사교육』 92.
- 백광준 (2006) 「嚴復의 번역어 탄생과 그 운명-개념어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48집.
- 성백효 역주 (1993) 「毛序」 『詩經集傳』,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30.
- 손지봉 (2006) 「서양의 번역문화범주 이론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 의미」, 『중국어문학지』 21.
- \_\_\_\_\_ (2007) 「번역과 문화전파」, 『중국어문학지』 24.
- \_\_\_\_\_ (2008) 「郭沫若의 번역론 연구」, 『중국어문학지』 28.
- \_\_\_\_\_ (2010a) 「林語堂 번역론 연구」, 『중국학보』 62.
- \_\_\_\_\_ (2010b) 「傅雷의 번역관 고찰」, 『중국학연구』 52.
- \_\_\_\_\_ (2010c) 「중국의 번역론에 대한 전통문학론의 영향고찰 -嚴復, 郭沫若, 林語堂, 錢鍾書」, 『통번역교육연구』 제8권 2호.
- 신희원 (1970) 「嚴復 연구-그 생애와 사상-」, 『이대사원』 제9집.
- 양일모 (1999) 「번역의 사상사-康有爲와 嚴復」, 『중국학보』 40.
- \_\_\_\_\_ (2008) 『엔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서울: 대학사.
- \_\_\_\_\_ (2009) 「자유의 조건: 嚴復의 『원부』, 『군기권계론』, 『정치강의』 분석」, 『중국학보』 60.
- 왕성 (2011) 「근대중국 지식인의 번역관-魯迅, 嚴復, 梁啓超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55집.
- 이보경 (2002) 「동서문명의 조우와 근대 중국 지식인의 번역관」, 『중국현대문학』 22.
- 조병환 (2000) 「19세기 후반 중일의 계몽사상: 嚴復과 福澤諭吉」, 『진단학보』 89.
- 페데리코 마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 (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문자』, 서울: 소명출판.
- 高惠群 (1992) 『烏傳翻譯家嚴復傳論』,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郭宏安 (1996) 「自設藩籬 循跡而行」, 『中華讀書報』.
- 金兵 杜慧穎 (2005) 「對嚴復翻譯標準的再認識」, 『中國鑛業大學學報(社會科

- 學版』.
- 馬祖毅 (1984) 『中國翻譯簡史-五四以前部分』,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61.
- 木曾 (1941) 「翻譯釋義」(『翻譯研究論文集』上冊). 369.
- 苗莉莉 賈正傳 (2009) 「嚴復的翻譯實踐原則-翻譯辨證系統觀和目的論角度的探討」.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6卷 第1期.
- 卞之琳 外 (1959) 「藝術性翻譯問題和詩歌翻譯問題」(『翻譯論集』) 654.
- 西北工業大學外語教研室 (1979) 『科技英語翻譯初步』, 商務印書館.
- 徐守平 (1994) 「雅義小論-重讀 天演論 譯例言」, 『中國翻譯』.
- 葉君健 (1997) 「翻譯也要出精品」, 『中國翻譯』.
- 沈蘇儒 (1998) 『論信達雅-嚴復翻譯理論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 顏德如 (2005) 「嚴復翻譯思想新探」,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第6期.
- 梁啟超 (1896) 「論譯書」. 中國翻譯工作者協會『翻譯通信』編輯部. 1984. 『翻譯研究論文集(1894-1948)』北京: 外語教學與研究.
- 鄧紅梅 (2008) 「嚴復翻譯思想宗述」, 『井岡山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第29卷 增刊.
- 嚴復 (1898) 『天演論·譯例言』.
- 倪慶儀 楊希英 (1982) 「嚴復的翻譯理論與實踐」, 『天津師院學報』第2期.
- 吳獻書(1949) 『英文漢譯的理論與實際』제4판(開明書店) 5-6.
- 王宏志 (2007) 『重釋 “信達雅”-20世紀中國翻譯研究』,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王言 (2011) 「論嚴復翻譯原則中的“雅”」, 『湖北經濟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8卷 第4期.
- 外文出版社 (1962) 「關於翻譯工作的幾個問題」『對外報導業務基礎』增訂版, 今日中國出版社. 224-225.
- 姚鼐 (1979) 「夏魯絜非書」, 『惜抱軒文集』臺北: 文海出版社有限公司.
- 劉重德 (1993) 『渾金璞玉集 翻譯原則再講』,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10.
- 劉治 (2007) 「論嚴復翻譯三標準」, 『山西農業大學學報』第6卷 第6期.
- 李廣榮 (2007) 「嚴復的翻譯思想:中國現代文化開啓之源」,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34卷 第4期.

- 李蟠 (1966) 「談談嚴復的翻譯」, 『湖南師大社會學學報』3期.
- 李培恩 (1935) 「論翻譯」, 『翻譯研究論文集』 上冊. 281.
- 李楊 (2011) 「嚴復信達雅與泰特勒翻譯三原則之比較」, 『青年文學家』 6期.
- 林錄南 (1994) 『中國當代翻譯百論』, 四川: 重慶大學出版社: 739.
- 林本椿 (2003) 「嚴復翻譯思想述評」, 『福建論壇』 『人文社會科學版』第2期.
- 張文清 (2005) 「嚴復的翻譯目的與選擇」, 『文教資料』 第30期.
- 趙寶瑩 (2011) 「嚴復的信達雅與泰特勒的翻譯三原則」, 『語言研究』
- 陳福康 (2000) 『中國譯學理論史稿, 修訂本』,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陳西滢 (1929) 『論翻譯』(『翻譯論集』), 401.
- 皮后鋒 (2006) 『嚴復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0-42.
- 韓省之(1997) 「近代中國翻譯先驅嚴復」美國 『僑報』.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1993) 『漢語大詞典』11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819.
- 胡適(1922)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 2集 卷2, 上海亞東圖書館出版. 115-118.
- 黃克武 (1998) 「嚴復的翻譯: 近百年來中西學者的評論」, 『歷史研究』, 『東南學術』第4期.
- 黃偉芳 (2006) 「翻譯規範與嚴復的翻譯」, 『湖北教育學院學報』 第23卷 3期.
- 黃忠廉 (1998) 「嚴復翻譯思想研究百年回眸」, 『福建外語』第3期.
- Alexander Fraser Tytler (1790) *Essay on the Principle of Translation*.

[Abstract]

## The Analysis of “Ah(雅)”, Translation Theory of Yan Fu

Son, JiB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s to disclose the meaning of “Ah(雅), the translation theory of Yan Fu,” which has come under intense scrutiny in academia. Yan Fu, a scholar of ancient literary writings of Dong Sung School, was a translator of modern Western studies and translation theorist.

Shindalah (信達雅), the translation theory of Yan Fu, has been the focus of academic debate since Tang Dynasty. It is a unique theory of translation built on the three principles of translation advocated by Taylor. Whereas Taylor set great store by the loyalty to the original text, Yan Fu emphasized readability, arguing that deviation from the original text is possible if it helps to convey the original meaning.

Yan Fu said that Ah(雅) is about rendering the Western literature, product of two thousand years of discrete culture into oriental language. Students of his theory have held the view that Ah is more important than “Shin(信, faithfulness)” and “Dal(達, mastery).” They thought that translator should have a full grasp of the original text before rendering in an easy-to-comprehend manner to the readers, which requires capability, efforts and creativity of the translators.

Yan Fu classifie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text into superficial, general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and the level of translated version into a level produced by best efforts, a level enough to convey the original meaning to the readers and a level that can have an extensive impact on the wide strata of readers. Ah is a level that befits the translation born of

deep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so that it can have an impact on wide strata of readers.

▶ Key Words: Yan Fu, Shindalah, translation theory, Ah, translation level, Chinese translators.

손지봉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jibson@ewha.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8일